미래를 심는 씨앗, 지역 연합포교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지난 주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경기도 한 사찰의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했다. 내가 있는 강원 산간 지역에는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는 사찰을 찾을 수 없어 평소 인연 있는 스님의 사찰까지 간 것이다. 부모 없이 낯선 절에서 1박 2일을 보내야 해 걱정했지만, 아이는 동생, 언니·오빠들과 어울리며 다도, 108배 등을 씩씩하게 즐기고 돌아왔다. 이번 경험은 그 아이에게 불교와 더 친숙해진 계기가 됐을 것이다. 어린이법회와 여름불교학교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지킬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읍 소재 사찰에서 주지 소임을 살며 어린이법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인근 사찰들과 연합해 여름불교학교를 열고, 어린이법회와 일반법회를 함께 운영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부모와 조부모까지 법회에 참석하는 신행 문화가 만들어졌다. 어린이가 절에 오면 가족도 함께 온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는 포교의 원리다.

이처럼 어린이법회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어린이법회,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는 사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 사찰은 지도법사와 교사, 봉사자 부족에 시달리고, 농어촌 사찰은 어린이 자체가 적다.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개별 사찰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시대가 됐다. 청년법회, 불교대학, 합창단, 철야기도도 등도 마찬가지다. 불자들의 다양한 신행 욕구를 하나

연합포교, 다양한 신행 욕구 위한 해법
협력 통한 사찰 공동 운영, 새 돌파구로
사찰-교구-종단 전법 네트워크 구축돼야

의 사찰이 모두 충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해법은 '지역 연합포교'에 있다.

최근 종단 포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며 연합포교에 대해 생각해 봤다. 사찰 각각의 장점을 연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포교의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역 사찰들이 힘을 모아 어린이·청소년법회와 여름불교학교를 공동 운영하고, 합창단과 불교대학, 철야기도도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군법당과 대학 불교동아리를 지원하고, 지역 불자를 위한 복지시설과 수행 공간까지 함께 마련하는 일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주지를 구하지 못해 비어가는 사찰의 관리와 활용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시대일수록 지역 단위의 협력이 절실하다. 사찰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할 때 비로소 어린이부터 청년, 군인, 직장인, 노년층까지 생애 전 주기를 함께하는 불교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교구의 역할도 중요하다. 종단은 연합포교 실현을 위한 종책과 연구를 추진하고 표준화된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도법사와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교구본사는 지역 사찰 간 협력을 조정·지원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 또 지역별 계층포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표준 공양 게송, 법회의식 자료 등의 보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 역시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 포교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연합포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개별 사찰과 지역, 교구와 종단이 촘촘히 연결되는 전법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한국불교의 미래 100년도 더욱 든든하게 이어질 것이다.

안전한 '디지털 울타리' 만들기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생성형 AI의 일상화와 플랫폼 알고리즘의 고도화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SNS)는 소통과 정보 탐색, 자기표현의 핵심 공간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용은 학습 집중력 저하와 수면 장애를 넘어 우울, 불안, 사이버 괴롭힘 등 심각한 사회·심리적 폐해를 낳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행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무한 제공하는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청소년의 자율적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의존성을 극대화한다. SNS의 편익 뒤에 숨은 미디어 중독과 유해환경은 이제 개인이나 가정의 자율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디지털 연령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전면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를 필두로 영국과 뉴질랜드가 16세 미만 제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와 덴마크(15세 미만), 오스트리아(14세 미만) 등도 연령 기준을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EU) 역시 법적 연령 확인과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시민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한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규제 방식은 다를지라도, 청소년 보호를 개

청소년의 자율성 약화·미디어 중독 우려
세계 각국, 디지털 연령 제한 정책 펼쳐
디지털 안전, 공공정책 핵심 가치 삼아야

별 이용자 책임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책임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법적 금지와 차단만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SNS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 즉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사회 참여가 이뤄지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규제는 우회 접속이나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으며, 국경 없는 플랫폼의 특성상 단일 국가의 법제화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중심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이동해야 한다.

핵심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다. AI 알고리즘 디자인은 체류 시간 및 수익 극대화가 아닌,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재설계돼야 한다.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기술 도입, 중독성 유발 기능 개선, 유해 콘텐츠 차단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학교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화하고, 가정은 통제보다 대화를 통한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교, 가정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주체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다. 과거 산업사회가 교통 및 식품 안전 제도를 통해 시민을 보호했듯, AI시대에는 디지털 안전을 새로운 공공정책의 핵심 가치로 정립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건강한 성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잡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다.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 기술을 청소년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 있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전한 디지털 울타리 안에서 미래세대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社 說

세계유산, 살아있는 가치로 이어가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 개최한 세계유산위원회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 각국의 문화·자연유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 공동의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지를 논의한 이번 회의는,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상을 세계에 각인한 무대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7건의 세계유산,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20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산사를 비롯해 영산재와 연등회, 불조직지심체요절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등은 한국불교가 인류 문화사에 남긴 소중한 유산이다.

한국불교 문화유산 가치 세계에 알려
시대와 호흡하며 협력으로 미래 계승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개막식에서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승무가 어우러져 기후위기와 분열의 시대를 성찰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대한민국관에서는 영산재와 사찰음식, 수륙재, 산사, 팔만대장경, 선명상 등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계유산 전문가들은 통도사를 찾아 지금도 수행과 공동체의 전통이 이어지는 산사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문화유산이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 쉬는 수행과 생활의 공간임을 체감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부산 선언'이다. 선언은 기존 세계유산협약의 다섯 가지 전략 목표에 '협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세계유산을 지켜온 사람과 공동체, 그 정신까지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행과 의례, 공동체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는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산사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이유도 천년 넘게 수행공동체가 이어져 온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등재 자체에 있지 않다. 세계유산이 인류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보존과 연구는 물론, 오늘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와 체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설, 수행과 의례의 전승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부다.

이번 회의는 우리에게 '세계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함께 읽고, 경험하며, 기억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답은 유산이 담고 있는 철학과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살리고, 공동체와 함께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데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사에서는 수행이 이어지고, 영산재와 연등회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뤄지는 문화이며, 사찰음식과 선명상은 현대인과 호흡하며 새로운 공감을 얻고 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와 소통할 때 비로소 유산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산이 된다.

한국불교가 오랜 세월 이어온 수행과 공동체, 생명 존중과 평화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계승하고 세계와 나누어 갈 때, 우리 문화유산은 비로소 '살아있는 유산'으로 다음 천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2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